

지체의 말씀

불기 2561년 11월 / 통권 44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상독행상독보 달자동유열반로
 常獨行常獨步_{하니} 達者同遊涅槃路_라
 언제나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나니
 통달한 이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 노닌다.

조고신청풍자고 모취골강인불고
 調古神清風自高_요 貌悴骨剛人不顧_라
 곡조 예스럽고 정신은 맑으니 풍류는 저절로 높고
 초췌한 모습의 고집 센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구나.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인간미가 있는 사람 / 운성스님

불교상식 · 7

반야심경 강의(般若心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4

알림마당 · 17

대광사 11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11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11월 활동

석굴암 참배 안내

대광산악회 산행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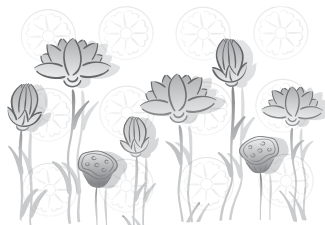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인간취미가 있는 사람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요즘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누구 할 것 없이 미모에 올인 한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보면 거의가 보톡스 시술 내지는 성형 수술한 얼굴들이다.

자태는 노인인데 얼굴만 팽팽한 모습은 절대로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너무 심한 시술로 사람 얼굴 같지 않고 조각상 같이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반질반질하고 온기가 없는 얼굴은 쳐다 보기조차 싫은 징그러운 모습이다.

사람들이 대체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심하고 딱한 모습이다.

이르기를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차림새에 매달리고 외양에 신경을 쓴다.’ 했다. 차림새에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면이 가득 찬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다. 외면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남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배우들 중에도 가름에 콩 나듯 얼굴에 손 안 댄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사람이면 누구나 남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바라는 공통점이 있다.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 좋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기를 누구나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에 치우칠 경우 역현상을 일으켜 보기에 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얼굴조차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학 문명이 역으로 지나친 욕망을 충동질하여 껌질만 치중하고 내면을 가꾸지 않게 하는 악한 영혼이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으니 어찌하랴?

공자가 이르시길 “저마다 저다움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라 했다. 노인은 노인다워야 한다.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한다. 저답지 안음이야 말로 가장 추악한 모습인 것이다.

군인이 스님 같다면 얼마나 꼴사납겠으며 스님이 군인 복장으로 다니면 얼마나 보기 싫을 것인가? 학생다운 학생은 아름답다. 선생다운 선생은 더 아름답다. 저마다 저다움은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의 사회를 만든다.

그렇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결코 외형으로 이루지지 않는다. 삶이 격조가 있고 따듯하여 이웃에게 친밀감을 주고 정다운 인간애를 느끼게 할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지게 된다.

아무리 얼굴이 보기에 좋다 해도 그 마음 씀이 이기적이며 독선적이며 거칠다면 필경 하는 말은 듣기 거북할 것이며 하는 행동은 가



카이 하기 싫은 오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진실한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느니 사람을 자비로 대하고 이웃을 편하게 하고 보시하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부지런히 자기를 다듬어 향기 나는 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셨다.

내가 아는 원로 여배우 중에 무려 여든 하나나 되는 고령이신 김영옥이라는 분이 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든 활기차게 연기활동하고 있고, 여느 여배우들 같이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미로 사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다.

“성형하는 중견 여배우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리고 싶어. 특히 여배우는 연기를 해야 하는 얼굴인데 성형수술로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부어서 오는 동료 배우들을 마주칠 때면 마음이 좋지 않아.”

“정말 좋은 어른이 되는 게 내 바람이야. 매일 일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좋은 어른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 그 분이 어느 기자의 대답에서 토로한 자기 삶에 대한 소신이다.

배우가 얼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분은 그런 분이리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존경심이 간다.

그렇다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에 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아름다운 인간미를 발휘하며 사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불교 상식

반야심경 강의(般若心經 講義)

능 제 일 체 고 진 실 불 허
(13)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능히 일체의 고통을 제거합니다. 진실하여 헛됨이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은 신비하고 헤아릴 수 없어 일체의 고통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실행할 때에는 깊은 관조(照見五蘊皆空)의 능력을 통해서 일체의 고통을 다 제거합니다.(度一切苦厄). 그러나 반야바라밀의 신비한 위신력을 믿는 사람은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을 다 제거합니다.(能除一切苦).반야바라밀다는 진실한 내용입니다. 전혀 헛됨이 없습니다.(眞實不虛). 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밀한 언어의 반야바라밀로 중생의 고통을 다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 설 반야 바라 밀 다 주 즉 설 주 알

(14) 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揭帝揭帝 波羅揭帝 波羅僧揭帝 菩指 娑婆訶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합니다. 곧 주문을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 부분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입니다. 우선 다라니의 음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로 읽습니다. 그런데 범어의 음에 가깝도록 발음을 하면 ‘가퇴가퇴 바라가퇴 바라상가퇴 보드히 스바하’가 가까운 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제아제’로 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음계의 특성이 인도와 다르기 때문에 ‘가퇴’가 ‘아제’로 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범어의 반야심경이 ‘가퇴가퇴’로 된 주문이 있고, ‘아제아제’로 된 주문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 반야심경에는 ‘아제아제’로 표현된 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혜륜 역(智慧輪 譯)

唵 誡帝誡帝 播羅誡帝 播羅散誡帝 冒地 娑縛賀
음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산아제 모지 사박하



2) 법성 역(法成 譯, 돈황석실본)

莪帝莪帝 波羅莪帝 波羅僧莪帝 菩帝娑訶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보제사하

3) 반야공이언등 역(般若共利言等 譯)

擘諦擘諦 波羅擘諦 波羅僧擘諦 菩帝 娑婆訶
얼제얼제 파라얼제 파라승얼제보제 사바하

4) 시호 역(施護 譯, 많은 주문 중 맨 끝에 있는 주문 중에)

誡帝誡帝 波覽誡帝 波帝羅僧誡帝 冒地 娑縛賀
아제아제 파람아제 파제라승아제 모지 사박하

이상과 같은 표기를 통해서 반야심경에는 조금씩 발음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본에 따라서

‘揭帝’ ‘誡帝’ ‘莪帝’ ‘擘諦’ 로 기록된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끝부분에서 ‘菩指’ ‘冒地’ 등으로 표기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원음에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문의 ‘음’ 을 표기할 때 약간씩 달라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읽는 방식은 지혜륜 역, 시호 역의 내용이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진언의 뜻에 대해서 언급할 순서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견이 있어 왔었습니다. 첫째는 진언에는 불가사의하고 무궁무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 할수도 없고, 번역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언에 있어서도 그



뜻을 알아볼수 있는데 까지는 알아보고 번역도 할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가지의 의견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진언(眞言)은 총지(總持)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이루어진 만다라(曼荼羅, Mandala)입니다. 만다라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언은 쉽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대로 정성을 들여 독송하는 중에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진언에 대한 기본 준칙입니다.

그러나 진언의 그 많은 뜻 중에 만 분의 일이라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조심스럽게 번역을 시도해 본 예가 있습니다.

중국의 법장(法藏, 643~712)화상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 (1) 아 제 아 제 : 度 度 (도 도)
- (2) 바라 아 제 : 彼岸度 (피안도)
- (3) 바라승아제 : 彼岸總度 (피안총도)
- (4) 보제사바하 : 覺速疾 (각속질)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시다. 감시다.
- (2) 피안으로 감시다.
- (3) 피안으로 모두 감시다.
- (4) 깨달음의 세계로 속히 감시다.

이와 같이 번역 할수 있습니다. ‘도(度)’는 바라밀을 한문



으로 나타난 것으로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피안’이란 뜻은 단순히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세계, 행복의 세계, 반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다는 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부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다는 것은 바로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언을 다음과 같이 옮길수 있습니다.

- (1) 이루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 (2) 해탈의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 (3) 해탈의 세계를 다 함께 이루겠습니다.
- (4) 깨달음의 생활로 속히 이루겠습니다.

진언에는 무궁한 뜻이 있는 중에 원(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진언을 발원(發願)의 의미로 본다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여러 측면에는 번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은 처음 경 제목의 ‘반야바라밀’을 다시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진언에서는 ‘반야바라밀’을 거듭 비밀한 언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언에 있어서도 반야바라밀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진언은 반야바라밀의 내용을 재천명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언은 정성스럽게 봉독하는데서 그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시도하든 그 진언이 내포하고 있는 뜻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진언의 참다운 면목을 신앙심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맺는말

이상으로서 반야심경에 대한 강술을 대략 끝마칩니다. 불교에 있어서 반야부의 경전은 그 양에 있어서도 대단하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중에서도 반야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심경’ 이니까 더욱 중요한 경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반야부 경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에는 ‘반야바라밀’이 생명입니다. 반야는 바로 진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공’이라 하였고 ‘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 공의 세계는 반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반야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의 본체는 ‘불생불멸’입니다. 공은 반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공은 어떤 상대적 허무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는 그 공능(功能)으로 최고의 해탈을 성취합니다. 반야심경 본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최상의 열반을 이루고, 삼세제불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무상정각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신앙과 발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의 후반부에서는 밀설(密雪)반야를 통해서, 반야바라밀은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이기 때문에 능히 온갖 고통을 다 제거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반야바라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진언을 통해서 처음의 반야바라밀의 내용을 다시금 천명하는 동시에 간절한 발원(發願)을 담고 있습니다. 발원이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반야의 인격을 보였으며, 불생불멸을 통해서 반야의 실상을 천명하였고, 보살과 부처님을 통해서 반야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에 대한 신앙과 반야바라밀에 대한 발원으로서 반야심경의 종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자 수는 전부 합해서 270자 밖에 안되는 짤막한 경이지만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법보(法寶)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게 된 것을 무한히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뱀의 품

2. 다니야의 경 [Dhaniya-sutta]

[소치는 다니야]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하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하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 “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높에 우거진 풀위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물결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 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윤행하므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젃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뱀 어미소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젃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뱀 어미소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소치는 다니아]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큼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행복한 분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악마 뽀뽀만]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세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 대광사 11월 법회 및 행사 ◎

- ◆ 11월 3일 : 음력9월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1월 12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 11월 14일 : 석굴암 참배
- ◆ 11월 15일 : 수능백일기도 회향
- ◆ 11월 18일 : 음력10월 초하루 기도입재
- ◆ 11월 20일 : 초하루기도 회향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석굴암 참배 ◎

- 일 시 : 2017년 11월14일(화)
- 장 소 : 오후 2시 진해역
- 동참금 : 4만원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545-9595

◎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

11월2일 김려관 영가 오전10시 대웅전



태백동 금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9월 15일~10월 19일)

박덕선 100,000 대광산악회 60,000(9.10월) 포교사단 80,000
 찬불단 100,000(9.10월) 박진호 50,000 황두관 10,000
 정연수 30,000 홍승운 20,000 허점자 10,000 유봉악 10,000
 (주)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임군출 10,000 조성부 200,000
 박미애 10,000 김지현 100,000 정진이 10,000 오현우 30,000
 홍예현 50,000 김민복 10,000 불대16기 130,000 서경스님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8/25~9/15)

강 란 10,000 하형규 10,000 대광사 후원회 50,000
 유미란 10,000 홍예현 10,000 안옥래 10,000 향운개 10,000

♥ 음력 9월 초하루 공양자

과일공양 · 여래심 300,000 떡공양 · 대도화 300,000
 공양미 · 지마트, 김민지

♥ 생일공양

신유미 500,000

♥ 백중기도 누락자

염불봉사단 떡공양 200,000

♥ 지혜의 말씀

(영) 청량심 10,000 박경순 100,000



11월 유치원 행사

1. 2018학년도 원아모집 안내

- 일시 : 2017. 10. 31(화) 유치원교육설명회
- 일시 : 2017. 11. 01(수) 신입원아추첨
- 대상 : 2014. 1. 1.~ 2012. 12. 31.생 00명
- 문의사항 : 545-9599 대광유치원으로 문의주세요.

2. 2017년 가족 숲길 걷기 안내

- 일시 : 11월 11일(토) 오전 9시 30분~12시
- 장소 : 장복산 편백길
- 대상 : 대광유치원 원아 및 가족

3. 대광유치원 체력다지기 한마당

- 일시 : 11월 24일(금)
- 장소 : 대광유치원 운동장
- 대상 : 대광유치원 원아 전체

11월 어린이법회 활동

1. 가을 숲길 걷기 및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8일(토)
- 장소 : 경주 석굴암, 불국사
- 준비물 : 간식 및 음료, 편안한 복장

*상기일정은 어린이법회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광산악회 제36차 창녕 화왕산 산행안내

- 일 시 : 11월 19일 일요일 오전 8시
- 출발지 : 대광사
- 참가비 : 만원 (저녁비 준비)
- 준비물 : 도시락 · 간식 · 따뜻한 물 · 개인컵

단풍놀이 갑시당 ^^~~~~~

대광산악회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